

이번엔 꼭 크로아티아 이긴다

홍명보號 10일 전주서 설욕 다짐… 만주기치·모드리치 등 빠져 ‘1.5군 전력’

‘유럽과 태극전사’의 가세로 화려히 보강된 홍명보호(號)가 7개월 만에 다시 불붙는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에 설욕을 다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밤 8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크로아티아와 맞붙는다. 크로아티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위

크로아티아전 한국 예상 베스트11

10일(화)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KBS2TV 중계)

 4-2-3-1

의 강팀으로 한국(56위)보다 무려 48계단이나 높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한국은 지난 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에서 손흥민(레버쿠젠), 지동원(선덜랜드),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정용(볼턴), 구자철(볼프스부르크), 기성용(선덜랜드), 이동국(전북) 등 정예멤버가 나섰지만 무려 4골이나 허용하며 0-4로 무너졌다.

이 때문에 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이번 크로아티아 평가전의 핵심은 ‘설욕’이다.

그동안 유럽파가 빠진 가운데 네 차례 A매치에서 3무1패의 쓰슬한 성적표를 받은 홍명보호는 지난 6일 유럽파가 가세한 가운데 치러진 아이티와 평가전에서 4골을 쏟아내며 출발 이후 첫 승리를 쟁기며 사기가 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크로아티아

에 제대로 굴욕을 맞본 유럽과 선수들이 홍명보호에 대부분 함유하면서 이번만큼은 쉽게 불러서지 않겠다는 의욕을 다지고 있다.

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크로아티아 대표팀 명단에는 만주기치(바이에른 뮌헨),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유타리(볼프스부르크), 니키차 엘라비치(에버턴)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빠졌다. 대신 주장인 스트리나와 이번 벨리시치(볼프스부르크), 에두아루두(샤흐타르 도네츠크) 등이 포함돼 1.5군의 전력을 평가된다.

비록 크로아티아가 주요 선수들을 뺏지만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 취임 이후 유럽의 강호를 처음 만나는 만큼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 밀그림을 그리는 대표팀의 전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 감독은 아이티전에 나선 베스트

11과는 차이를 두고 크로아티아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의 ‘더블 불란테’는 하대성(서울)-이명주(포항) 끝비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 포백(4-back)에는 박주호(마인츠)-김영권(광주우)-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김창수(가시와)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비수인 윤석영(QPR)과 이용(울산)의 투입도 가능하다.

골키퍼는 최근 애이스로 떠오른 김승규(울산)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4위 아이티와의 평가전에서 혼자서 2골을 터트린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의 원맨쇼와 구자철(볼프스부르크), 이근호(상주)의 페널티킥 골을 앞세워 4-1로 대승했다.



도쿄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日 통산 네번째… “후쿠시마 원전 영향 없을 것”

일본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125차 총회를 열고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 일본 도쿄를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올림픽 개최 최종 후보도 시로는 도쿄 외에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이 함께 경쟁했

다. 이로써 일본 도쿄는 1964년 제18회 대회 이후 56년만에 다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일본은 이로써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 1972년 삿포로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올림픽 개최 자격을 얻었다.

이날 1차 투표에서 도쿄가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을 얻지 못해 2차 결선 투표가 이어졌다.

1차 투표에서 동률을 기록한 이스탄불과 마드리드가 재투표를 벌인

끝에 이스탄불이 49-45로 승리, 결선 투표에 진출했으나 도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도쿄는 결선 투표에서 60표를 획득, 36표에 그친 이스탄불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번 유치전에서 도쿄는 유력한 개최 도시 후보로 꼽혔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건이라는 악재로 고전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도쿄에 영향을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IOC 위원들의 표심을 불잡았다.



김세영, 한화금융 클래식서 짜릿한 역전 우승

김세영(20·미래에셋·사진)이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8일 충남 태안의 골든베이 골프장 오션·밸리 코스(파72·65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연

장 승부를 벌였다. 18번홀(파5)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골을 잡아 2m를 조금 넘는 과 퍼트를 실패한 유소연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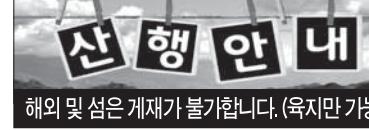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은 김세영은 시즌 상금 4억8827만원으로 상금 선두로 도약했다. 올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이후 약 5개월 만에 시즌 2승째를 거뒀다.

김세영은 우승후 “오늘 훌륭한 같은 기적이 일어나 우승했지만 함께 플레이한 소연 언니에 비하면 아

직 멀었다”며 “다음 시즌 월리파이스 쿰에 도전해 2015시즌에 진출하는 것 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유립(23·고려신용정보)이 1오버파 289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신인왕 경쟁을 벌이는 김효주(18·롯데)와 전인자(19·하이트진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해외 및 섬은 계재가 불가합니다. (육지만 가능)

9월 11일(수)

▲광주청룡산국악회 9월 11일(수) 전북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룡산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4일(토)

▲광주청도국악회 9월 14일(토)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5일(일)

▲광주청도국악회 9월 15일(일)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6일(월)

▲광주청도국악회 9월 16일(월)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7일(화)

▲광주청도국악회 9월 17일(화) 월출산 전황봉(봉우리)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8일(수)

▲광주청도국악회 9월 18일(수)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19일(목)

▲광주청도국악회 9월 19일(목)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0일(금)

▲광주청도국악회 9월 20일(금)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1일(토)

▲광주청도국악회 9월 21일(토)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2일(일)

▲광주청도국악회 9월 22일(일)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3일(월)

▲광주청도국악회 9월 23일(월)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4일(화)

▲광주청도국악회 9월 24일(화)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5일(수)

▲광주청도국악회 9월 25일(수)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6일(목)

▲광주청도국악회 9월 26일(목)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7일(금)

▲광주청도국악회 9월 27일(금)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8일(토)

▲광주청도국악회 9월 28일(토)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29일(일)

▲광주청도국악회 9월 29일(일)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도국악회 1 011 646 3450, 011 259 0284

9월 30일(월)

▲광주청도국악회 9월 30일(월) 진안 내동재(금산 산인삼재)회관 07:50 백운동로토리라, 08:00 교원공원회관 08:10 문예회관후문 08:10, 동광주IC입구 08:20 디디뮤지컬 08:20 광주청